

## “부모라면 가슴 미어져”...광주도 이태원 참사 추모 물결

광주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 발길 잇따라  
 희생자 안식 염원·유족 위로·연대 뜻 전해  
 “청춘은 죄 없다” “국가가 국민 못 지켰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가슴 미어질 수 밖에 없죠.” “못다 핀 청춘이 무슨 죄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애도의 뜻을 담은 글귀를 정성스럽게 방명록에 남긴 뒤 저마다 국화를 한 송이씩 들고 천천히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 입은 한 중년 남성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분향을 마쳤다.

어머니를 따라 분향소를 찾은 한 아이는 고사리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집어 제단 위에 놓으며 살포시 눈을 감기도 했다.

옛된 얼굴의 한 대학생은 제단 앞에서 한참 고개를 떨군 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애

통함에 눈시울을 붉히는 시민들도 있었다.

추모 시민들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며 안식을 기원했다.

박모(43·여)씨는 “보도를 통해서만 참사 소식을 접하다 보니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분향소를 찾아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너무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들이 부디 편안한 곳에서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21)씨는 “누군가의 친구이자 아들·딸이었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유가족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한다. 조문 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조문 방명록에도 희생자를 위로하고 참사로 슬퍼하고 있을 유족과 공감·연대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

방명록에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잠드소서’, ‘유가족은 저희 국민이 책임지겠습니다’,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분향소 한 칸에는 접착형 메모지(포스트잇)에 쓴 추모 글을 붙이는 벽이 마련됐다.

시민들이 손 글씨로 쓴 메모지에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별처럼 빛나길 기도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곳에선 아프지 마시길’, ‘Pray for Itawon’,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부디 영면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조문을 마친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딸을 둔 아버지인 최모(52)씨는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희생자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이번에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경찰 만큼은 반드시 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만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직장인 강모(29·여)씨는 “희생자 대부분이 또래 친구거나 남동생 형 정도 되는 것 같아 남 일 같지 않다”며 “젊은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다가 어이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사고 위험을 미리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막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엉키면서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 중 10명이 광주·전남과 연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이슬기자

##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거래 300조원대로 급감...금융위기 이후 처음

10월 채권거래대금 354조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지난 달 채권 거래 규모가 10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내외 채권거래대금은 354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431조원)보다 77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5조원)과 비교하면 10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채권거래 규모가 300조원대 머문 것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19년 월간 기준으로 600조원 수준이었던

국내 채권 시장 거래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700조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500조원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450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액은 55조359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채권 시장은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채권시장은 장내거래서 올해 4월(101조원)과 5월(105조원) 100조원 넘게 거래되는 등 투

자가 활발했다. 그러나 9월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지급 보증을 철회하면서 채권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회사채 금리가 올 들어 2배 넘게 뛰면서 회사채 시장 투자 심리도 악화됐다. 지난달 31일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 5.736%, 신용등급 BBB-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 11.591%로 연고점을 기록했다. 연저점을 찍었던 지난 1월3일에 비해 3%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신용 관련된 일이 발생해 시장이 경색되고 거래가 잘 되지 않아 거래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 해남군 “김장 책임집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땅콩 해남의 가을배추 수확이 시작됐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태풍의 여파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됐으나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올해 해남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3071ha, 겨울배추 1711ha로 지난해에 비해 가을배추 재배는 늘고, 겨울배추는 줄어 들었다.

현재 수확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절임배추로 가공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최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www.hnmiso.com)에서는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질 좋은 절임배추를 원하는 날자에 배송받을 수 있다.

해남=기동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권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